

성치 않는 몸 이끌고 쓸고… 닦고… 즐거운 봉사

광주 빛고을건강타운 구석구석 누비는 '천사 어르신' 정수진 할아버지

경기가 어려워지면 인심도 각박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남을 위한 따뜻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봉사활동을 하는 이가 있다. 지난 수년간 거의 매일 성치 않은 몸을 이끌고 광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구석구석을 제집처럼 자발적으로 청소하는 정수진(74·광주시 남구 봉선동)씨가 바로 주인공이다.

지난 15년 전 임상병리사로 정년 퇴직한 후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온 그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직원·이용자들 사이에서 '천사 어르신'으로 불린다.

15년 전 임상병리사로 정년 퇴직

건강위해 운동따로 할 필요 없어요

제집 가꾸듯 청소해온지 4년

남을 위해 할수 있는 일 있어 뿌듯할 뿐

그는 광주시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매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30분 동안 등 자기 집 가꾸듯 어루만진다. 여기저기 그의 손길이 가지 않은 곳이 없다. 이곳에서만 물려온 4년째.

그의 모습이 아름다운 이유는 성치 않은 몸을 이끌고 이곳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자원봉사하는 마음으로 매일 같이 쓸고 닦고 즐기 때문이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 조금이라도 더러운 곳이 있으면 언제나 정씨를 찾으면 다 되는 이곳의 천사 어르신.

그는 거의 온종일 거북이 등딱지처럼 기방을 메고 다닌다. 가방엔 면장갑과 비닐봉지가 들어 있다. 어딜 가더

라도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 등을 보면 바로 주운 뒤 비닐봉지에 담기 위해서다.

또 강의실·운동장 등 한 모퉁이엔 그의 빗자루와 마대·집게 등 청소도구가 있다. 몸이 불편해 들고다닐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만이 아는 장소에 청소도구를 각각 보관해둔 뒤 누군가 자신을 찾으면 곧장 달려가 청소도구를 꺼내 사용한다. 그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는 말은 결코 빙言이 아니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유효진(여·31) 기획담당은 "이른 아침에 나오셔서 늦게까지 일하시는 데, 본받을 점이 너무 많은 어르신"이라며 "정말 언제 보아도 한결같이 열심이다. 이 어르신 같은 분 몇 분만 계신다면 광주시내가 깨끗해질 것"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주변 어르신들이 업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칭찬을 아끼지 않자 곧바로 손사를 쳤다. 그의 손사래엔 오히려 남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묻어 있었다.

10년 전 허리 수술을 받아 몸이 불편하지만 그는 깨끗한 환경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운동하며 즐기는 모습을 보면 자신의 기분도 덩달아 좋아진다며 힘써웃음을 지었다.

그는 특히 이곳에 정이 들풀 들어서인지 매일같이 보이던 분이 멀티 나오지 않으면 '어디가 아프신가.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 물시 걱정이 된다며 오히려 다른 어르신들의 건강을 걱정했다.

이 때문인지 그는 이곳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다. 그가 사는 동네에서도 그를 알아보는 이들이 많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출근 전과 퇴근 후 동네 골목길 청소도 꾸준히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이 하락되는 한 계속 이 일을 하고 싶다는 그에게 도 작은 바람이 있다. 건강을 더욱 쟁쟁 활동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그는 "건강을 쟁긴다는 생각으로 청소를 시작했는데, 벌써 수년이 지났다"며 "청소하고 난 뒤에 깨끗해진 거리를 보는 것도 기분이 좋지만 무엇보다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소를 하며 땀을 흘리니, 운동을 따로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건강은 물론 주변환경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남을 위해 무언가를 베풀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흐뭇해 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정수진(74)씨가 14일 광주시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 화관 정문 앞길에서 청소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사회복지종사자, 같은일 하고도 지역별 월급차 최대 112만원

국회보건복지위 김성주 의원 지적

보건복지부가 매년 공무원 인건비 95% 정도 수준으로 정해 하달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가 지키지 않아, 같은 일을 하는 사회복지 종사자가 지역별로 급여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민주당) 의원은 보건복

지부에서 받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 등 재정여건을 감안해 인건비를 시설에 지원하는 것도 이유 중 하나라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김성주 의원은 "대부분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다"며 "적은 임금 기준인데도 이마저도 받지 못해 이직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복지 업무는 종사자 처우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이유는 각 자치단체가 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 등 재정여건을 감안해 인건비를 시설에 지원하는 것도 이유 중 하나라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김성주 의원은 "대부분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다"며 "적은 임금 기준인데도 이마저도 받지 못해 이직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복지 업무는 종사자 처우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불리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보다 길어지면 1년마다

■

정부안 확정 '기초연금' 오해와 진실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다는는데…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는 손해"

기초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1만원씩 떨어지는 구조인 때문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12년이면 19만원, 13년이면 18만원 단계적으로 깎여 20년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10만원만 받게 된다.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역차별을 받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이와 연계해 기초연금이 줄어든다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는 분명 손해인 셈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의 청년층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 기초연금에서 손해 볼 가능성이 크다. 또 현재 노년층이 세수 기여도에 비해 과도한 복지를 누리면 자연스레 그 부담은 젊은 세대로 이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가장 많이 챙길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11년까지만 국민연금을 내고 개인연금으로 갈아탈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오래 부을수록 기초연금이 깎이는 것은 맞지만 국민연금 자체의 보장률이 좋기 때문에 개인연금보다 상대적으로 낫다는 목소리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가령 20년 동안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 8만9100원을 부으면 47만원(기초연금 16만원(부부)+국민연금 31만원)을 받는다. 국민연금에 안 들고 개인연금저축에 들면 42만원(기초 32만원+개인연금 10만원)을 받는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다소 유리하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 측에선 "국민연금 가입의 유불리를 째지는 그 자체가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행한 지 14년(도시자영업자는 1999년 시행)밖에 안 되 아직 뿌리도 못 내린 국민연금이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

※기초연금은 기초, 국민연금은 국민으로 표기

■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의 진실은

주장	정답 진실은
손해보는 사람 없다	○ 최소한 기초 10만원 받는다
정기가입자 기초연금 유리	✗ 국민연금 기입 않거나 기입 11년이면 기초 20만원, 기간 1년 늘 때마다 1만원 깎기
청·장년층이 현 노인에 비해 불리	○ 청·장년층은 국민연금 기입 기간 길어질 것이고, 이 경우 기초연금이 최고액(20만원)에서 싹감됨
기초·국민연금대상자10%에 불과	△ 지급은 맞지만 국민연금 성숙하면서 기입 기간 늘어 연체 대상 증가 불가피
정부안이 지속기능 높았다	○ 2060년 기준 공약 이행 380조원, 현행 기초노령연금 263조원, 정부안 228조원
국민연금 대신 개인연금저축 기입이 유리(보험료 8만9100원 20년 가정)	① 국민연금 대신 연금저축(8만9100원 20년 기준) ② 국민연금 20년 기입·기초 16만원+국민 31만원=47만원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광주일보

개업·성업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선재영술원
동구 서석동남동천주교정문건너편 신양촌2층
시주, 관상, 운명, 궁합, 성명학
택일, 승진운, 이사운, 묘지상담
대표 천명남
☎(062)225-4125

세정헤어#
남구 병림동 광신로27길 101
남여켓트 고데드리미 펌, 컬링, 브레이즈
대표 박세정
☎(062)232-7003

365부동산
백운동 453 백운휴먼시아 3단지입구 제일로 후문
365일 신뢰와 책임중개로 임하겠습니다
☎(011)617-2296

프렌치스토리
백운동 586-21번지 석산고앞 구피출소자리
돈까스와 치킨이 맛있는집
☎(062)471-8253

바위섬횟집
쌍촌동 1346번지 1층번지 정문건너 멱자골목
각종회전문 사계절 메뉴등
☎(062)372-4224

제이당구장
북구 오신동 100-5번지 현대아울렛에서 우체국 한남마트 2층
국제식 대대보유
☎(010)3644-7923

월계동 817-5번지
비자락회무침, 우렁회무침
점심 : 애호박찌개, 우렁쌈밥
대표 고광숙
☎(062)971-4488

진도맛집
월계동 817-5번지
비자락회무침, 우렁회무침
점심 : 애호박찌개, 우렁쌈밥
대표 고광숙
☎(062)971-4488

월계동 188-1번지
정통중화요리 전문
자금성 셋트메뉴 판매
☎(062)511-4043

한우찌갈비전문점(첨단점)
쌍암동 664-6번지 첨단병원옆
고기류, 식사류등 전문점
최선의 서비스
☎(062)971-5666

월계동 1273 입동오거리
Sony 광주 판매 전시장
☎(062)522-2000

삼보컴퓨터첨단점
월계동 835-1번지 월계초등학교에서 방통대사이
모든 컴퓨터 수리 전문점
대표 김경모
☎(062)972-3512

동구 황금동 90번지
애물, 순금, 시계 및 고급품목일체
대표 김삼용
☎(062)232-6453

석당화랑
동구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죽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동구 충장로 3가 1번지 이포유정문건너 2층
직접 볶은 신선한 커피
대표 김현오
☎(062)229-0230

커피홀릭
동구 충장로 3가 1번지 이포유정문건너 2층
직접 볶은 신선한 커피
대표 김현오
☎(062)229-0230

동구 두암동 11-2번지 구동구청뒤길
백반·대구탕·생태탕·오리탕·삼겹살
대표 이복례
☎(062)432-0888

이가회관
동구 금남로 2가 11-2번지 구동구청뒤길
백반·대구탕·생태탕·오리탕·삼겹살
대표 이복례
☎(062)432-0888

북구 두암동 광신로 11-2번지
시·군·구 무자본 대리점 및 남·여시원모집
월수입 700만원~1,000만원보장
대표 김운복
☎(062)251-0611

무등산에너지(주)
북구 두암동 광신로 11-2번지
시·군·구 무자본 대리점 및 남·여시원모집
월수입 700만원~1,000만원보장
대표 김운복
☎(062)251-0611

북구 유동 15-14번지 2층 유동로타리
광주전자역부동산
분야별매매·매수·전문취급 전문상담
대표 최승권
☎(010)2363-6996

광남공인중개사
북구 유동 15-14번지 2층 유동로타리
광주전자역부동산
분야별매매·매수·전문취급 전문상담
대표 최승권
☎(010)2363-6996

북구 서동 253-22번지 서현교회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자격증소지
24시간 출장, 인마기능
☎(062)651-7474

가든안마지압원
북구 서동 253-22번지 서현교회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자격증소지
24시간 출장, 인마기능
☎(062)651-7474

북구 현대 3동 188-1번지
정통중화요리 전문
자금성 셋트메뉴 판매
☎(062)511-4043